



제 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막식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6일>

▲제 8회 정신장애인 학마을 축제=오전 9시 광주시 구동 신내체육관. '나누는 사랑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5개구 만성장애인 1천200여명 참석 예정.

▲제 128회 강진산강좌=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 방송인 김병조씨가 '명심보감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

▲제 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막식=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부대 행사로 오후 2시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디지털 미디어' 포럼과 '케이블 HD 상영관' 등 운영.

▲119 안전체험 대축제=오전 11시 순천 팔마체육관. 1만400여명 학생(5천명)·소방 관계자(2천700명)·의용소방대(1천800명) 등 1만400여명 참석 예정. 27일까지.

▲2006 종중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을 위한 채용박람회=오후 2시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체

육관. 엠포테크놀로지 코리아(주)·(주)럭키산업 등 광주·전남 40개 기업이 참석할 예정.

▲친환경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심포지엄=오후 1시30분 전남대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 이원교 전남대(양식생물 전공) 교수·구자공 한양대(환경공학) 교수·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등이 '2012 세계박람회 대비 여수연안 해양환경 정비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

▲제 78회 순천시랑아카데미=오후 2시 순천문화예회관 소극장. 이가령 경희대 교수가 '문화와 산상력,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54회 황토골 자치마당=오후 4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한광일 한국웃음센터 원장이 '웃음은 만병통치약(웃음치료 행복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27회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부동파크호텔 4층 연회장. 이현정(호남대 총장)씨가 '세계속의 한국대학: 대학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해 강연.

▲제 11회 장성 백양단풍축제=오전 9시 장성군 백양사 광장 주무대. 단풍 등산대회 및 단풍거리 건강달리기·백양 단풍 시낭송대회·단풍 열서전·장성 놀길깎기 대회·단풍 책갈피 만들기 등 공연·체험 행사. 29일까지.

▲제 409주년 해남명량대첩제=오전 10시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 29일까지.

▲2006 자활한미당=오전 10시 광주시 염주체육관. 자활후견기관 관계자 등 1천300여명 참석 예정. 오전 9시 장흥군 실험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자활박람회 및 자활가족 운동회.

▲제 5회 세발낙지 큰잔치=오전 11시 무안군 망운면 성현리 조금나루 유원지. 낙지 잡기 대회·망둥이(운저리) 낙지 대회·갯벌 생태 체험·낙지 요리 경연대회 등 행사. 29일까지.

▲제 4회 창평 전통음식축제=오후 5시 담양군 창평면 창평 전통시장 일원. 마을별 전통음식 Best 경연대회·쌀엿 만들기·국밥 빨리먹기·한과 많이먹기 대회 등 행사. 29일까지.

▲제 29회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2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원협약단 제 40회 정기연주회 '흥과 신명의 소리'=2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시립교향악단 제 229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27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어린이 복합 뮤지컬 '해님달님'=27일(금) 오후 10시30분, 11시30분, 낮 12시50분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주부인형극단 인형극 공연 '친구 친구 내친구', '먹이사슬'=27일(금) 오후 10시 광주시 향토문화센터 2층 공연장.

▲김광표 개인전=31일까지 광주서구문화센터 갤러리.

▲조대조각동문(백학) 회원전=11월1일까지 메트로갤러리.

▲남청회전=11월1일까지 상계갤러리.

35.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이 지난 22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이었던 이 전직 대통령은 3공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거쳐 1976년부터 4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10·26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같은 해 제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이듬해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외교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최규하 ②윤보선 ③이승만 ④박정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6일(음 9월 5일 戊子)

子 36년 생 식구와 떨어지지만 좋은 일이다. 48년생 옛 일이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 60년생 가정이 소란이나 조용히 해결된다. 72년생 흥이 빠르게 변하는 형상이다. 84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9, 10

丑 37년생 조용한 호수에 물을 던진다. 49년생 미운 놈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하라. 61년생 빠른 감정은 떨어지고 화해를 시도하라. 73년생 미움이 발생하니 신중 하라. 85년생 연인에게 전화가 온다. 행운의 숫자 : 19, 20

寅 38년생 겉으로는 좋으나 속으로는 삶은 사람이 생긴다. 50년생 자신과 가정, 직장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62년생 이득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74년생 오늘은 밖에서 차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1, 17

卯 3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고 협조자가 나타난다. 51년생 삼반된 적장을 만난 경이니 백사를 신중해야 한다. 63년생 이외의 득처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75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2, 27

辰 40년생 강물이 핵무리 파도소리가 높다. 52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64년생 많은 일이 순조롭고 새롭게 주변의 도움이 발생한다. 76년생 눈을 조금만 낚셔서 협상을 보라. 행운의 숫자 : 16, 23

巳 41년생 협력자를 만나는 격으로 도움을 받는다. 53년생 새로운 사업이나 허황된 문서에 눈풀나니 신뢰를 회복하다. 65년생 과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77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행운의 숫자 : 24, 25

午 42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가정에서 화목을 유지하라. 54년생 특별한 제방도 쥐구멍으로 끓진다. 66년생 여성은 먼저 화해하고 지출은 가장과 의논하라. 78년생 자신을 낚줘야 자신이 오른다. 행운의 숫자 : 03, 04

未 43년생 집안 안정은 지속되나 참을 일이 생긴다. 55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 인연이 생긴다. 67년생 이웃을 살펴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79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는 행운의 숫자 : 13, 15

申 44년생 큰 욕심을 내지 않는 한 좋은 날이다. 56년생 여려 방법으로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야. 68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은 있다. 80년생 뜻밖의 출자리는 피하라. 행운의 숫자 : 05, 14

酉 45년생 가정의 우환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57년생 주변의 기민과 허황된 문서를 조심해야 순질을 피한다. 69년생 부부간의 이해 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81년생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된다. 행운의 숫자 : 16, 13

戌 46년생 믿는 도끼가 위험하게 세워보리. 58년생 핫자, 동업, 신규투자는 절대 금지하라. 70년생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82년생 친구가 다시 도와주고 새 문서를 접고 나면 경사로다. 행운의 숫자 : 07, 12

亥 47년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나 이루기는 어렵다. 59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애로가 있을지도. 71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드리한다. 83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은 없으니 지중하라. 행운의 숫자 : 11, 18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④ 친구들이 불면...

가을비가 허뻑 내리는가 싶더니 가을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 허썩 또 한 계절이 넘어가고 곧 겨울이 오는가 싶은 날씨다. 해가 짧아져 점점 일찍 어두워지고, 낮엔 포근하다가 밤낮으로 예기치 못한 친구들이 오고 숙을 파고 들고, 길 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오뎅국물이 푸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겨울로 가는 이런 계절은 외로운 심그들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한다.

사실 가을이란 계절은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짧막한 한 도막으로 스쳐갈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여름이 길게 늘어지면서 하늘하늘한 가을 블라우스를 입을 겨를도 없이, 바로 쌀쌀한 겨울날씨가 찾아오곤 한다.

어릴 때는 가을운동회, 가을소풍 등으로 인해 가을을 기다리고 준

비하는 마음이 깊어지며 더욱 짧지 않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가을을 알리는 높고 과란 하늘을 바라보고 서늘한 바람을 피부로 느낄 사이도 없이 삶의 사회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그리고 겨울이 오고 연말이 오면 또다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에 더 가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무엇인가 기다리는 마음이 보면 늦게 오듯 느껴지는 것처럼 늦게 왔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빨리 온다는 것 같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싱글들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제발 오

인연을 찾기 위해 달려라

지 않으면 하는 게 절이 바로 겨울이다. 친구들 때문에 옆구리가 서늘한 것도 큰 이유이지만 하얗게 눈 덮인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아름답게 느낄 징이 없다는 것, 들썩이는 세상 속에 웬지 나도 설레는 연말과 크리스마스에 함께 신나는 일을 계획할 징이 없다는 것 등 실제로 쓸쓸해지는 싱글들의 마음 속에 더욱 불을 지르는 아픔이다. 차라리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도 적지 않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심금들은 조금은 다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왜 외로울까'라는 한숨으로 소중한 짧은 날들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말고 주운 계절로 가는 이 즐거움의 자극을 오히려 적극 활용해 도약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도약이란 한마디로 '연인 찾기'라 할 수 있다.

인연을 찾기 위해 달려보자, 날씨가 춥더라도 힘껏 달리면 온몸에 서 열이 나며 체온이 오르듯이 마음이 추울 때 또한 한없이 달려보자.

마음에 불이 불을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골인점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며, 지나치면 다시 돌아가 골인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달리며 서서히 마음에 불을 피울 준비를 해보자. 늦가을 친구들처럼은 기본이 이겨내기에 가장 좋은 자세가 바로 이 달리기 자체가 아닐까 한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개인전 개인전 준준결승 1국 1보(1~13)

白 유 흘 주 5단 <KT 전남본부> 黑 박 광 주 5단 <포스코>

단 체
전은 '포스코'의 우승이 최강자'라는 타이틀 때문일 것이다. 박광주 5단은 단체전 우승이라는 일차목표를 달성하고 조금 느긋한 입장인 반면 유흥주 5단은 개인전에 서서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하는 상반된 입장이다. 두 대국자는 모두 단체전에서 3승1패로 2위로 개인전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흑 9 때 백 10으로 물러 12로 잡은 것은 간명한 수법, '참고도'의 변화는 최근의 유행이다. 박 5단은 흑 13으로 전투형 중국식 포진을 펼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RF 한국마사회

바둑 소식

온소진·목진석 원의배 순항

온소진 3단과 목진석 9단이 지난 24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의배 십단전 본선 1회전에서 승리, 2회전에 진출했다.

이날 김광식 5단은 165수 만에 흑 불계로 꺾은 온소진 3단은 김수용 초단과 본선 3회전 진출을 다투다.

목진석 9단도 김자석 3단에게 219수 만에 행운의 백 반집승을 거두고 2회전에 합류했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전이다. 4강 진출자는 차기 대회 본선시드를 확보한다.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 500만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61>

a sob story

신파조 소설

A:Did you read her new novel?